

AUTHOR 신복윤

TITLE 칼빈의 권징론

IN 신학정론

vol. 52 (5, 2009): 37-50

3) 독일어

Johannes Calvin, Unterricht in der christlichen Religio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Nach der letzten Ausgabe bersetzt und bearbeitet von Otto Weber,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55, 1988.

2. 약어

ACC 6 = R. C. Gamble, ed.,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A Fourteen-volume Anthology of Scholarly Articles, vol. 6: Calvin and Hermeneutics,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ACC 7 = R. C. Gamble, ed.,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A Fourteen-volume Anthology of Scholarly Articles, vol. 7: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alvin's Theolog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2.

CR = Corpus Reformatorum

칼빈의 권징론

신 복 윤

[조직신학 · 명예총장]

권징(Discipline)은 칼빈의 교회정치 형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권징은 그의 제네바 추방의 원인이 되었으며 제네바 귀환의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몸부림이요 승리였고, 그 시대에 대한 칼빈의 도덕적 영향의 비밀이었다.

칼빈의 그 위대한 목적은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그는 항상 바울이 에베소서 5:27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타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 그런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고백과 일치하게 살며, 선한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개혁파교회 전 공동체에서 이 고상한 이념을 시도하고 바로 시행한 사람은 종교개혁자들 중 오직 칼빈 한 사람뿐이었다.

1. 교회 권징의 필요성과 그 성격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4권 12장에서 권징 문제를 다룬다. 그의 견해는 건전하고 성경적이다. 그는 처음부터 권징이 없는 단체나 가정은 적절한 상태에서 보존될 수 없다고 하였다. “조그마한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므로 권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¹⁾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처럼,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은 서로 결합된다. 그러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해체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²⁾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고 날뛰는 자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의 역할을 한다.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몹시 타락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宥和)로써 부드럽게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매와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신자들을 억제하는 방법이 없어서 교회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는 이를 시정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고 경건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한 시정책은 오직 이 권징뿐이다.³⁾

칼빈은 “모든 사람이 각각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지문하고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그 밖의 보조 수단을 첨가해서 교리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지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답한다. 이것은 권징에 대한 칼빈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⁴⁾

칼빈이 당시 로마교회를 가장 크게 반대한 것 중의 하나는, 그들이 성경의 법을 계속 위반하면서도 그들에게 권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칼빈은

주장하기를, “로마교회의 감독들 중의 한 사람도, 아니 백 명의 교구 사제들 중의 한 사람도, 고대교회의 법에 따라 그의 행위에 대하여 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도 출교되지 않았으며, 기껏해야 그 직책에서 쫓겨났을 정도였다……그만큼 성직자들의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책망하라고 하던 옛날 규율은 이제는 폐물이 되고 말았다”⁵⁾고 한탄하였다. 칼빈은 그들의 도덕적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들은 무절제와 나약과 주색 등, 모든 정욕에 깊이 빠진데 있어서 그들보다 더 이름난 계급은 없다고 하였다. 그들처럼 온갖 기만과 사기와 반역과 배반에 능숙한 계급도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해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같이 교묘하고 대담한 계급은 없다고 하였다.⁶⁾

한편 칼빈은 이 세상에서는 복음의 이념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완전을 향해 노력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모든 점에서 천사같이 완전하지 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모임이 없다고 하며, 열성을 구실로 삼아 있는 미점을 모두 부정”하는 재세례파와 그리고 “교회의 허물을 말로는 책망하면서도 출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감독들이 규율을 위반했다고 맹렬히 공격하며 그리스도의 양떼로부터 분리를 감행”한 도나투스파를 반대하고 어거스틴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칼빈은 마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설명한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선과 악이 혼재하기 때문에 불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질서의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실 때까지는 잠시 동안 신자들 사이에 한 자리를 위선자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양을 구별할 때까지 교회가 모든 더러움과 결합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악을 시정하고 교회를 불결에서 씻어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⁷⁾

1) *Inst.*, IV, 12, 1.

2) *Ibid.*

3) *Ibid.*

4) *Ibid.*

5) *Inst.*, IV, 5, 14.

6) *Ibid.*

2. 권징의 목적

칼빈은 권징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데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골 1:24) 그런 악하고 썩은 지체에 의해서 부패된다면, 그 머리에도 어느 정도의 치욕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수치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가정으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또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만찬의 제도를 보존하며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성찬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⁸⁾ 합당치 못한 사람들을 참가시킴으로 성찬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칼빈이 권징을 역설하는 하나의 근본적 동기가 되었다.⁹⁾ 칼빈은 성찬의 제도를 잘 보존하되 무분별하게 제공함으로써 성찬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성찬 분배의 일을 맡은 사람은 합당치 못한 자를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의식적으로 성찬에 참여시킨다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과 같은 모독죄를 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신성한 신비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찬 분배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의 재판권이 행사되어야 한다.¹⁰⁾

칼빈은 사제(司祭)들이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아무도 제외시키지 못하는 것을 엄중히 공격한 크리소스톰(Chrysostom)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그대들의 손에서 피 값을 요구할 것이다(겔 3:18; 33:8). 그대들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는 그대들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7) *Com. on Matthew* 13:47.

8) *Inst.*, IV, 12, 5.

9)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Philadelphia: Westminster, 1956), pp. 197ff.

10) *Ibid.*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대들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권력이나 자색 옷이나 왕관들을 무서워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더 큰 힘이 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일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으며 피 흘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¹¹⁾

권징의 둘째 목적은,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서, “흔히 있는 것과 같이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데 있다.”¹²⁾ 사람은 옳은 길에서 이탈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도 나쁜 행실을 보면 바른 생활을 버리고 다른 데로 끌려가기가 쉽다. 사도 바울은 근친상간 죄를 범하는 자를 교회에서 추방하라고 명령하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5:6)고 경고했다. 바울은 여기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그들과의 모든 교제를 금지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전 5:11). 칼빈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면, 엄격한 종교적 태도뿐 아니라, 교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엄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니젤이 “권징은 교회의 도덕적 행위를 증진시키거나 교회생활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칼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¹³⁾ 물론 칼빈은 이 권징이 사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강압적인 것도 아니며,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권징의 셋째 목적은 “자신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수치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려는 데 있다.”¹⁴⁾ 악을 행한 자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런

11) Chrysostom, *Homilies on Matthew* lxxxii, 6., *Inst.*, IV, 12, 5. 각주 9 참조.

12) *Ibid.*

13) Niesel, *op. cit.*, p.189.

14) *Ibid.*

뜻에서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살후 3:14)고 했다.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하면서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전 5:5)고 했다. 칼빈은 이 말씀을, 그를 임시로 정죄해서 영원토록 구원 얻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¹⁵⁾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말은 마귀는 교회 밖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권징의 목적은 칼빈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교육적인 것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징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데 있으며, 셋째 목적은 회개 또는 개선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을 아주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권징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본 것은 후기 개혁주의 정통 신학이다. 그는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부처(Bucer)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서는 그와 의견을 달리했다. 루터가 교회의 두 표지(notae ecclesiae), 즉 복음 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주장한 데 반하여 부처는 여기에 교회의 권징을 하나 더 가했던 것이다. 칼빈에 있어서 권징은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개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칼빈의 생각대로 교회의 조직에 속한 것이지 교회의 정의(definition)에 속한 것은 아니다.¹⁶⁾ 교회가 비록 지상에 존재하는 한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회원들이 현재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다. 승천하셨으나 여전히 육체로 계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이요 부패하지 않은 육체는 사람을

15) Ibid.

16) Francois Wendel, *Calvin: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s* (New York: Harper and Row, 1963), p.301.

위한 새로운 모범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매일 진보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에서 거룩하다. 즉 하루하루 전진하지만 아직은 거룩이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¹⁷⁾

3. 권징의 세 단계

칼빈은 교회 권징을 세 단계로 분류한다. 첫 단계는, 사적으로 권고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권징의 첫 기초는 사적인 충고를 하는 것이다. 어느 교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점잖지 않은 생활을 하거나, 또는 비난 받을 행동을 했을 때에, 그는 충고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모든 사람이 형제에게 충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¹⁸⁾ 목사와 장로는 신자들에게 설교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훈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에는 각 가정을 심방하여 경고하고 충고할 의무가 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또는 각 가정에서 가르쳤다고 하였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행 20:20).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하였다(행 20:31). 권징의 둘째 단계는, 몇몇 증인들 앞에서 혹은 교회 앞에서 권고한다. “만일 이런 충고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계속 그 죄를 범함으로써 충고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며, 그 후에는 교회 재판소, 즉 장로회의에 불러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더욱 엄중히 충고한다.”¹⁹⁾ 이것은 그가 교회를 존중하여 굴복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데 있다. 권징의 셋째 단계는 완고하게

17) *Inst.*, IV, 1, 17.

18) *Inst.*, IV, 12, 2.

19) Ibid.

불순종하면 성찬 참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집행된다. “이렇게 해서도 굴하지 않고 그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그때에는 교회를 경멸하는 자로 인정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신자의 공동체에서 제거한다.”²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7).

출교는 오직 기독교 신앙고백을 더럽히는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즉 간통, 간음, 도둑질, 강도, 선동, 위증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권위를 경멸하는 죄 등이다. 그리고 이 권징은 감독 혹은 목사에게서만 집행되어서는 안 되고 장로회에 의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 “일반 신도가 대책을 결정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함으로써 증인과 감시인이 되어 사태를 알며 소수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일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조치의 전 과정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증거하는 엄숙함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재판권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²¹⁾ 더욱이 교회는 “온유한 심령”(갈 6:1)으로 그 엄격함을 조절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벌을 받은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고후 2:7) 특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²²⁾

죄인이 회개의 합당한 증거를 보일 때에는 출교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강조한다. 칼빈은 타락한 자의 회복을 거절한 고대 교회의 지나친 엄격주의를 반대하였다. “우리는 고대인들의 과도한 엄격주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주의 명령에서 완전히 떠난 것일 뿐 아니라, 극히 위험한 것이었다. 엄숙한 참회와 수찬 정지를 혹은 7년, 혹은 4년, 혹은 3년, 혹은 종신토록 계속해야 했으니 큰 위선이나 철저한 절망 외에 무엇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고대인들이 현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²³⁾ 그리고

20) Ibid.

21) *Inst.*, IV. 12. 7.

22) *Inst.*, IV. 12. 8.

23) Ibid.

한편 칼빈은 키프리아누스(Cyprianus)의 방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을 참고 온유하고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나는 모두가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우리의 동료 군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진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모이기를 갈망한다. 나는 모든 일을 용서하며 많은 일을 묵인한다. 형제들을 모으겠다는 열망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허물을 자세히 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용서해서는 안 될 허물까지도 용서하는 나는 거의 허물을 범한다고 하겠다. 나는 회개하면서 돌아오며 겸손하고 단순한 보상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즉시 받아들이고 완전히 사랑한다.”²⁴⁾ 칼빈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신데 그의 사제가 엄격한 체할 까닭은 무엇이나”고 하면서 엄격주의를 반대한 크리소스톰과 분열을 버리고 돌아온 도나투스파를 서슴지 않고 받아들인 어거스틴의 온유한 태도를 예찬하였다.²⁵⁾

칼빈은 이어서 더 말하기를, 온유한 태도는 교회 전체에 필요하다고 한다. 교회는 타락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하며, 극도로 엄격한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한다. 오히려 바울이 지시한 대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후 2:8). 평신도들도 이와 같이 온유한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선택된 사람들의 수효에서 삭제하거나 이미 멸망한 사람인 것처럼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는 동안에 한해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온유한 태도가 아닌 완고한 태도를 보일 때에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 판단에 맡기고 그들의 일이 앞으로는 현재보다 더 잘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²⁶⁾

24) Cyprian, *Letters* lix. 16., IV. 12. 8.

25) Ibid.

칼빈은 출교(excommunication)와 저주(anathema)를 구별한다. “저주는 모든 용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정죄한다. 출교는 그의 도덕적 행위를 처벌하고 징계한다. 출교도 벌을 주는 것이지만 장차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사람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데 있다. 그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화해와 교제의 회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²⁷⁾ 따라서 교회의 권징은 출교된 자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바른 생활로 돌이키며 교회에 돌아와서 함께 연합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다. 사도 바울도 그들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하라”(살후 3:15)고 가르쳤다. “이 온유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권징에서 즉시 도살 행위로 타락하게 될 것이다.”²⁸⁾

칼빈은 목사라고 해서 재판받는 것을 면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성직자의 권징을 찬동했다. 성직자도 평신도와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고대 교회 감독들은 자신들과 자기 계급에 부과한 교회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성직자는 사냥, 도박, 환락 등에 빠지지 말고, 고리대금이나 장사도 하지 말고, 난잡한 무도회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다.²⁹⁾ 이 교회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교회법의 권위를 세우려고 벌칙도 첨가했다. 감독들은 이 법에 따라 성직자들을 다스리며 그 의무를 지키게 하였다. 감독들은 매년 순시하며 종교회의를 열어서 직책을 등한히 하는 자를 경고하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 벌을 주었다. “죄가 있는 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은 면직시키는 것과 성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었다.”³⁰⁾

26) Inst., IV, 12, 9.

27) Inst., IV, 12, 10.

28) Ibid.

29) Inst., IV, 12, 22.

30) Ibid.

이 엄격한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에는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모범과 행동에 나타난 것 이상을 신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신자들에 대해서 보다 자신들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였다. 신자들에 대해서는 더 온유하고 관대한 규율로 다스리면서, 성직자들끼리는 서로 더욱 엄격하게 책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당시 로마교회 성직자들은 이 교회법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이 모든 권징이 폐물이 됐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오늘날 이 계급보다 더 방종하며 방탕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분개하며 탄식하였다.³¹⁾

4. 권징의 집행³²⁾

칼빈은 제네바에서 자신의 권징 제도의 확립을 위한 격렬한 투쟁 끝에 마침내 성공하였다. 당회(감독원)와 의회는 부도덕성의 시정을 위해서 청교도적 열정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가끔 지혜와 절제의 한계를 넘곤 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곧, 모든 시민은 교회의 회원이며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릇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었다.

춤, 도박, 술 취함, 선술집의 빈번한 출입, 불경스러운 언행, 사치, 평민의 지나친 접대, 의복의 사치와 무례함, 방탕하거나 불경한 노래가 금지되고, 책망과 벌금, 혹은 투옥으로 형벌이 가해졌다. 심지어는 식사 때 접시의 수량까지 규제되었다. 술고래는 한 번 범죄에 3솔(sol, 프랑스의 화폐 sou의 옛말, 옛 동전)의 벌금을 지불했다. 상습 도박꾼은 목에 굵은 노끈을 두르고

31) Ibid.

32)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Grand Rapids: Eerdmans, 1969), pp. 489-494 참조.

웃음꺼리가 되게 하였다. 불은 서적이거나 부도덕한 소설을 읽는 것도 금지되었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의 이름을 로마교회 성자(聖者)들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미신을 조장하기 때문이었다. 이단, 우상 숭배, 신성 모독, 그리고 고문 등의 야만적인 관습에 대한 사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간음도 역시 사형에 처해졌다. 이것들은 무신앙과 부도덕성을 예방, 또는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지법이며 보호법이었다.

그러나 의회는 역시 위압적인 법률도 만들었다. 이 규칙들은 종교의 본질과 위배되며, 오히려 위선과 무종교를 양성하기 쉬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지를 보기 위해 감시원이 임명되었다. 당회원들은 교인 가정의 신앙과 도덕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씩 매 가정을 방문하였다. 거리에서의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이 보고되었으며, 범죄자는 당회 앞에서 책망 또는 경고를 받았고, 혹은 의회에 넘겨주어 엄격한 형벌을 받게 하였다. 인격과 지위와 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신사숙녀 할 것 없이 가장 명망 있는 가문의 인사들도 가난하고 하류 계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다루어졌던 것이다.

권징의 가장 인상적인 경우들이 있다. 상류 사회의 어떤 귀부인은 과도한 춤 때문에 투옥되었다. 저명한 정치가 중의 한 사람은 친구와 더불어 한 병의 포도주를 걸고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당회에 소환되었다. 어떤 사람은 나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농담 삼아 “그는 아름다운 시를 읊었다”고 한 것 때문에, 3개월 동안 제네바 시에서 추방되었다. 어떤 청년은 그의 신부에게 “이 책은 가장 좋은 사편이다”라는 논평이 붙은 가계부 한 권을 선물로 주었다고 해서 처벌되었다. 설교 도중 웃었다고 해서 세 사람이 3일 동안 투옥되었다. 어떤 사람은 성령 강림절에 성례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회개를 해야 했다. 세 어린이는 설교 도중 교회당 밖에서 과자를 먹었다고 해서 벌을 받았다. 어떤 어린이는 자기 어머니를 도둑이요 마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채찍으로 맞았다. 어떤 소녀는 그녀의 부모를 때렸다고 해서 침수형

에 처해졌는데, 이것은 제5계명의 위엄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은행가는 계속해서 간음죄를 범한 것 때문에 처형되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죽었으며, 공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볼섹(Bolsec), 젠틸르(Gentilis), 그리고 까스텔리오(Castellio) 등은 이단 사상 때문에 공화국에서 추방되었다. 마법사들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화형에 처해졌다. 그뤼에(Gruet)라는 사람은 선동죄와 무신론을 주장했기 해서 침수형을 당했다. 세르베투스(Servetus)는 이단과 신성 모독죄로 화형에 처해졌다.

1541년부터 1559년까지 의회가 공적으로 한 결정은 견책, 벌금, 감금, 그리고 처형 등의 어두운 사건들을 보여준다. 1542년에서 1546년까지 58건의 사형 재판과 76건의 추방 결의가 통과되었다. 1558년과 1559년 사이에는 각종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414건이나 되었다.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 칼빈의 적들과 관계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칼빈의 모든 업적들을 무시하고 그 위대한 개혁자를 냉혈 동물이나 잔인한 폭군이니 하면서 칼빈을 비난했다.

이런 종류의 법률 제정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교적인 로마교회와 레위기적 규약의 엄격한 맛이 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권징의 실제적인 집행은 너무 사소하고 불필요하게 가혹한 데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의 순결성을 위한 열정에서 그러했고 개인적인 원한 때문은 아니었다.

이제 이 글을 맺으려 한다. 교회는 피택자가 아닌 자들을, 그들이 선택받지 않았다는 것을 도저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신자가 아니라고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리나 회원의 행동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무질서 혹은 추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권징을 강조하게 된 것은 교리의 순수성과 성화에 대한 교회 회원들의 노력을 보존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을 통하여 그들은 각자 그 위치에서 서로 결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해방 후 권징이 사라진 우리 한국 교회는 진리 수호를 위해 하루 속히 권징의 회복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진리를 모든 오류에서 지키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교회라면, 권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난관이나 반대 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칼빈에게서 배워야 한다. 칼빈이 강조한 대로, “권징을 폐지하거나 그 회복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마침내 교회를 해체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³³⁾

바른 교회,¹⁾ 바르게 세우기: 직분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이 성 호

[조직신학 · 전임강사]

서론

칼빈은 무엇보다도 교회의 개혁자였다.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없애고 새로운 교회를 창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무엇보다 인간의 전통으로 오염된 거짓 교훈을 정화시켜 순수한 교리를 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야말로 교회를 개혁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었으며, 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칼빈은 평생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기독교 강요와 성경주석을 썼고 신학교에서는 강의에 힘을 쏟았고, 교회

33) *Inst.*, IV, 12, 1.

1) 칼빈의 신학에서 바른 교회란 거짓교회와 구분되는 참 교회를 가리킨다. 비록 참 교회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학정론에는 참 교회보다는 바른 교회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생각되어 ‘바른 교회’를 제목 안에 넣었다.